



'고졸 2년차' 정해영 '역대 최연소 30S'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지난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KBO리그 역대 최연소 30세이브를 달성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20세 1개월 27일'...20일 kt戰 1이닝 무실점 쾌투 'KBO리그 새 역사'

최근 10경기 8번의 세이브...타이거즈 구단 5번째 30S 달성



"2년차 징크스는 없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고졸 2년 차 정해영이 역대 KBO 리그 최연소 30세이브를 기록하는 새 역사를 썼다. 데뷔 2년차 KIA 뒷문을 맡은 정해영은 지난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최종전에서 팀이 3대0으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1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유한준과 제라드 호잉을 내야 땅볼로 처리한 정해영은 대타 신본기를 루킹 삼진으로 잡아낸 후 환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19일 SSG와의 경기에서 9회 마운드에 등판, 삼자범퇴로 막으며 29세이브를 수확한

정해영은 2경기 연속 세이브로 시즌 30번째 세이브 고지를 밟았다. KIA가 5강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추락한 가운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분위기 속에 불펜에서 상시 대기한 정해영은 지난 3일 한화전에서 23세이브, 6일 롯데전에서 24세이브, 9-10일 한화전에서 25-26세이브, 14일 삼성전에서 27세이브, 16일 두산전에서 28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열린 10경기에서 8번의 세이브를 기록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앞서 59경기에서 5승 4패 29세이브를 기록 중이던 정해영은 이날 60번째 등판에서 30번째 세이브를 따내며 KBO리그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20세 1개월 27일'의 나이로 30세이브를 올

린 정해영은 LG 트윈스 고우석(21세 1개월 7일)을 넘어 'KBO 역대 최연소 30세이브'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는 1993년 선동열(31세이브), 1995년 선동열(33세이브), 1998년 임창용(34세이브), 2015년 윤석민(30세이브)에 이어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5번째로 30세이브를 달성한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데뷔 첫해인 지난해 5승 4패 11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9의 성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정해영은 올해 중간 계투로 시즌을 시작해 '고졸 마무리'로 자리를 굳혔다. 한편, 이날 정해영에 앞서 8회 마운드에 오른 장형석도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32번째 홀드를 올렸다. 같은 팀에서 30홀드와 30세이브 달성자가 동시에 나온 것은 2006년 삼성 권오준(32홀드)-오승환(47세이브), 2012년 SK 박희수(34홀드)-정우람(30세이브), 2014년 넥센 한현희(31홀드)-손승락(32세이브), 2015년 삼성 안지민(37홀드)-임창용(33세이브), 2019년 SK 서진용(33홀드)-하재훈(36세이브)에 이은 역대 6번째다. /박희중 기자

잔류 향한 간절함 안고 마지막 원정 '필사즉생'



광주FC, 오는 24일 수원FC와 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정규리그 마지막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24라운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지난 라운드 강원 원정을 떠난 광주는 전반 22분 엄원상의 선제골에도 역전을 허용하며, 11위 성남FC(승점 34)와의 간격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하지만 광주에게 시간이 부족하다. 수원FC전이 종료되면 곧바로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 잔류 전쟁을 펼쳐야 한다. 현재로서 선수들이 자신감과 워닝

멘탈리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승점 3점이다. 광주는 장점인 공격에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전방 공격수 허윤은 부지런한 움직임과 헤더로 팀 연계플레이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엄원상은 강원전 득점으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또 엄지성과 두현석 등 빠른 측면 자원과 김종우의 키패스가 위력을 발휘한다면 득점력 폭발을 기대해도 좋다. 부상에서 돌아온 수문장 윤보상의 존재도 든든하다. 비록 2실점을 했지만 6개의 선방쇼를 보여주며 광주의 골문을 지켰다. 센터백 콤비 한희훈과 알렉스도 각각 13개의 클리어링을 기록하는 등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광주FC선수단이 지난 4월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번 상대 수원FC는 한승규, 김준준, 이영재, 라스 등 주축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현재 4위를 기록, 파이널A 진입목전에 있다. 탄탄한 조직력과 함께 리그 득점 3위(44득점)에 올라서는 등 막강한 공격을 자랑한다. 어려운 상대지만 광주는 수원FC에 강했다. 상대전적 13승 4무 6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팀내 최다 득점자인 라스(15골)는 4경기 연속 득

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또 수원FC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46실점)을 허용했다. 최근 광주 공격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신감있는 플레이로 상대 중원을 장악하고, 선제 득점을 통해 경기 초반 분위기를 가져와야 한다. 광주가 수원FC전 승리와 함께 잔류라는 대역전 드라마를 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오늘 여수서 개막

전남도·부산시·경남도 공동 개최...11개국 34척 경쟁

세계 11개국 34척의 요트가 바다를 가르며 힘찬 경연을 펼칠 제2회 '2021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가 22일 여수에서 개막한다.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공동 개최하는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는 4일간 여수 웅천원해마리나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 도남항을 거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까지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다. 제1구간은 여수 웅천마리나에서 오전 6시 출발해 통영 도남항까지, 제2구간은 통영 도남항에서 부산 수영만까지로 남해안 바다를 누비는 세계 요트인의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진다.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등 11개 나라에서 총 34척 291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루며 경기수역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국도선사협회 여수지회 등의 협조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방역관리에 중점을 뒀다. 참가 등록시 PCR검사 음성 확인 증명과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한

고 외국인 선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뿐만 구성해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대회 기간 세계 저명 스포츠채널, 유튜브, SNS 홍보 등을 통해 해상에서 진행되는 박진감 넘치는 요트경기를 간접적으로 관람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남해안권 3개 시·도 상생발전과 협력의 상징"이라며 "남해안의 그림 같은 비경과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요트 대중화와 요트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21일 열린 당구 여자 원쿠션 BIW(선수부)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확한 전남선수단 정선정(왼쪽)과 조경화.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역도 정현정 '한국新'

전남 당구 원쿠션 BIW '한솔밥 대결' 정선정·조경화 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 역도 정현정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정현정은 21일 포항 만인당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46kg급 데드리프트(지적부, 동호인부)에서 107kg를, -46kg급 스쿼트(지적부, 동호인부)에서 87kg를 들어 울려 각각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데드리프트의 성적과 스쿼트의 성적을 종합한 -46kg급 파워리프트종합(지적부, 동호인부)에서도 합계 194kg를 기록하며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을 다시 썼다. 광주선수단은 육상에서도 금메달 4개를 추가했다. 김진영이 여자 400m T20에서 1분08초15, 이승훈이 남자 400m T11에서 1분08초11, 김하은이 여자 400m T12에서 1분15초82, 김천원이 남자 창던지기 F13에서 34m50을 기록하며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수영에서는 전정일이 여자 평영 50m SB7, SB8(동호인부)에서 1분12초33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 패드를 찍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기 단체종목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졌다. 여자 좌식배구는 충남과의 치열한 접

점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남자 골볼 역시 경남을 14대4로 따돌리며 리그전 첫 승을 신고했다. 전남선수단은 당구와 론볼, 탁구에서 금메달 6개를 수확했다. 당구 여자 원쿠션 BIW에서 정선정과 조경화(이상 전남장애인당구협회)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해 한솔밥 대결을 펼친 결과 정선정이 금, 조경화가 은을 따내며 전남이 여자 원쿠션 BIW 강자임을 증명했다. 조경화는 휠체어럭비 선수로 활동하다 올해 초 당구로 전향, 첫 선발전에서 전남 대표로 선발돼 결승까지 오르며 신인에서 강자로 떠올랐다. 금메달을 딴 정선정은 22일 여자 3구 BIW 종목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지난 20일 혼성 4인조 Open 동호인부에서 금메달을 신고했던 론볼은 이날 남자단식 B7에 출전한 송명준(전남장애인체육회)이 경기도 대표 김상현을 10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육상에서는 필드 남자 원반던지기 F5 5 이민제가 22m96으로 대구 배기정(20m94)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탁구 남자단식 CLASS7 이창식(전남장애인탁구협회)은 결승에서 경기도 엄기홍을 3대1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박희중 기자

영광 해룡중 검도, 소년체전 동메달

영광 해룡중 검도부가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학생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따냈다. <사진> 해룡중은 21일 "최근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제50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룡중 검도부는 신의철 감독교사, 김재식 코치의 지도로 박준우·김태범·조우영·장술범·김현민·이승민·양조승·최정철 등 총 8명의 선수가 훈련하고 있다. 선수들은 정규 수업을 제외하고 저녁 시간과 휴일에도 훈련에 임하며 실력을 다져왔다. 노력 끝에 이번 대회에서 경남 진주중앙중, 대전 갑천중, 경기 신곡중, 인천 상인천중을 상대로 승리를 거

뒀다. 하지만 4강전에서 경기 광명중에게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6년 창단한 해룡중 검도부는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 은메달, 문화관광부장관배 제46회 전국학생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및 상비군 선발 등 화려한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대회 '전남GT' 개막

23-24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무관중 온라인 중계

국내 최대 규모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1 전남GT 대회'가 23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GT는 자동차 경주를 위해 제작된 달걀(지붕)이 없는 레이싱 전용차량과 달리 일반인 판매를 위해 개발한 고성능 자동차다. '전남GT 대회'는 국내 모터스포츠를 총결산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자동차, 모터사이클, 드래그레이싱, 오프로드 등 7개 종목 250여대가 참여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피드 축제로 매년 11월 전세계 40만명이 찾는 '마카오 그랑프리'를 본보기 삼은 '전남GT'는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를 기반으로 전남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전남GT'는 대회별 대표 클래스가 동시에 개최돼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슈퍼6000'부터 영국 레이싱 전용차량인 '레디컬', 1천cc 모터사이클 종목인 '슈퍼바이크'까지 국내 모터스포츠의 정상급 경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남GT'는 무관중으로 진행해 현장 관람은 할 수 없으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카카오TV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대회 진행상황을 생중계하고 채널A와 채널A 플러스에서도 결승전을 시청할 수 있다. /김재경 기자